

「許生傳」과 「貧妻」의 對比的 考察

一人物의 現實認識을 中心으로

趙 鎭 基

<目 次>

I. 序 言

II. 實學과 寫實主義

III. 現實認識과 反應의 樣相

IV. 結 言

I. 序 言

小說文學이란 본질적으로 現實 속에서 살아가는 人間問題에 중점을 두는 文學樣式이다. 그러므로 小說을 論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作品에 나타나는 人物이 살아가는 現實과 그 現實에 反應하는 樣相을 검토하는 일이라 하겠다.

그런 點에서 李朝 後期 實學이 盛行하던 時代의 實學者이자 作家인 燕巖 朴趾源과 1920年代 리얼리즘이 盛行하던 時期의 代表的 作家 惡處 玄鎭健의 世界는 시간적 距離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當代 現實을 冷澈히 파악하고 있다는 點에서 이들 作家는 當代의 代表的 作家로 지적될 수 있다.

신상 李朝小說을 검토함에 있어서 實學의 대두되기 以前의 作品이 어느 面에서 現實問題보다는 現實과 유리된 幻想의 世界에 많이 치우쳐 있다면 實學과 함께 作家의 視線은 보다 現實의인 問題로 집중되었다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그런 點에서 燕巖小說에 對한 검토는 重大한 意味를 지닌다.¹⁾

한편 惡處의 文學도 近代 西歐 리얼리즘의 受容으로 當代의 現實을 寫實的으로 묘사함으로써 民族的 리얼리즘의 作家²⁾로 규정되고 있다는 點에서 10

1) 最近 韓國近代文學의 起點論議에 있어서 近代文學의 起點을 英·正祖時代로 下向調整하는 作業도 英·正以前과 以後의 작가의식이 현저한 차이가 있음과 깊은 關係가 있다. (金允植·김현: 한국문학사)

2) 金宇鍾: 現代小說史, 宣明文化社, p. 152.

年代 李光洙의 文學과도 판이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點에서 憑虛의 文學은 前代의 그것과 역시 區別되어 진다고 하겠다.

또한 燕岩의 〈許生傳〉과 憑虛의 〈貧妻〉는 各各 그 時代의 知識人을 主人公으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作品全體의 構造가 상당히 類似性을 지니고 있다는 點에서 이들 作品에 보이는 現實認識의 態度를 통하여 作家意識을 살펴 보고자 한다.

Ⅱ. 實學과 寫實主義

燕岩 朴趾源(英祖 13年, 1736~純祖 6年, 1805)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當代 實學의 代表的인 學者이다. 18C 우리나라의 實學은 星湖 李瀾 茶山 丁若鏞을 中心으로 한 「經世致用派」와는 달리 洪大容, 朴齊家와 함께 「利用厚生派」의 한 사람이다. 이처럼 「利用厚生」의 實學派가 등장하게 된 것은 李朝社會를 유지해온 朱子主義가 壬·丙兩亂으로 그 모순점이 노출되고 내재적인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면서 실험정신이 확산 증대되기에 이르렀다.³⁾ 이와 함께 朝鮮後期社會의 構造의 變化⁴⁾를 통하여 李朝社會에 있어서 朱子主義는 많은 비판과 도전을 받게 된 것은 당연한 現象이다.

이러한 時代의 狀況에서 燕岩을 비롯한 實學派들은 反朱子主義의 態度를 취하면서 「利用厚生」을 주장했다는 것은 기존질서에 대한 反撥을 意味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연암은 서울의 都市의 분위기 속에서 商人, 手工業者와의 접촉을 통하여 商工業의 發展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流通의 擴大 내지 生産自體의 기술적 혁신을 熱烈히 主唱하였다. 여기에서 연암이 「利用厚生」을 名分論보다는 實用論에 보다 많은 比重을 두게 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燕岩은 당시 상공업자를 필두로 한 都市庶民의 要求를 代辯해 주었던 것이다.⁵⁾

燕岩은 經濟의 바탕이 없고는 국민의 도덕을 바로 잡을 수 없음을 깊이

3) 李東歡: 燕巖思想의 理念的 範疇와 反朱子主義, 文學思想 75年 2月號 參照.

4) 朝鮮後期社會의 변화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새로운 富農層의 出現, 화폐유통을 배경으로 한 상업자본의 발달과 수공업의 성장, 임금노동자의 출현, 대정번을 계기로 閥閥層의 形成과 거기 따른 몰락양반의 확산으로 커다란 變貌를 가지 왔다.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一潮閣, 姜萬吉: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李朝後期の 商業構造의 變化. 參照)

5) 李佑成: 實學의 社會觀과 漢文學, 韓國古典小說, 啓明大出版部, p. 129.

自覺하고 있었다.

嗟乎 如此然後 始可謂之利用矣 利用然後可以厚生 厚生然後 可以正其德矣 不能利其用 而能厚其生 鮮矣 生既不足以自厚 則亦惡能 正其德乎 (熱河日記, 渡江錄)

이러한 先利用 後厚生意識을 「士」의 使命으로 認識했다고 하겠다. 이 點에 대하여 李佑成教授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士」는 원래 實學을 가지고 農工商에게 貢獻을 해야 하는 것이니 오늘날 農工商이 움게 발전되지 못하는 것은 「士」가 實學을 갖지 못한데에 原因이 있다고 한 것이다. 비록 손으로 노동에 종사하지는 못하더라도 知慧과 識見으로 國利民福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이 그의 「士」의 義務이며 實學의 價値라고 하였다. 燕巖에 있어서의 「士」의 自覺은 近代 良心的 인테리의 使命感에 매우 상통되었던 것이다.⁶⁾

이러한 見解는 知識人の 社會的 役割⁷⁾을 充實히 遂行하려는 姿勢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代表作 〈虎叱〉 〈兩班傳〉 〈許生傳〉은 결국 當代 知識人像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當代 社會에 있어서 〈새로운 선비像〉을 提示했다고 하겠다.

한편 憑虛 玄鎮健도 20年代 文藝思潮의 混流 속에서 文學이란 當代 民族現實과 밀착되지 않고서는 韓國文學의 存在 理由가 없다는 것을 自覺하고 있었다.

時間과 場所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存在치 못하는 것이다. 달나라의 소요도 그만 둘 일이다. 구름바다의 遊戲도 그칠 일이다. 朝鮮文學인 다음에야 朝鮮의 땅을 든든히 디디고 서야 될 줄 안다.⁸⁾

진로 20年代에 술하게 밀려오는 西歐文藝思潮 앞에서 憑虛가 自覺한 世界는 20年代의 日帝의 收奪과 그로 인한 民族的 桎梏의 時代로 파악했던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20年代의 韓國식민지 사회는 3·1運動 以後 文化活動에 있어서 그들의 植民政策을 合法的으로 추진하려고한 소위 〈僞裝文化政策〉의 時期로서 결국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文學은 크게 세가지 類型化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李善榮教授는 1) 現實을 感각하여나 도피하여 唯美世界에 탐닉하는 유형(金東仁), 2) 현실과 자

6) 李佑成: Ibid. p. 132.

7) 拙稿: 韓國小說에 나타난 知識人像 慶南大論文集 第5輯, 1978參照.

8) 玄鎮健: 朝鮮魂과 民族精神의 把握, 開關 65號, 1926. 1月號.

신에 대하여 客觀적으로 認識하고 비판하려는 유형(廉想涉, 玄鎭健), 3) 사회현실을 階級意識적인 이데올로기로 해석하려는 유형(崔曙海, 朴英熙, 金基鎭)⁹⁾으로 나누어 고찰한 바 있다. 물론 그의 論理가 전적으로 妥當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玄鎭健의 文學世界가 現實과 깊은 關係 위에서 成立되었다는 點은 首肯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편 그의 生活이나 家庭的 背景도 그의 민족문학을 형성해 준 하나의 배경이었음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燕岩 朴趾源과 憑虛 玄鎭健은 時間적으로 約 2世紀나 先後關係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當代 現實을 깊이 自覺하고 當代社會의 구조적 모순에 反撥했다는 點에서 一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는 勢力으로 當代 知識人(선비)의 使命과 責任을 중히 생각했다는 點에서도 一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Ⅲ. 現實認識과 反應의 樣相

燕岩의 〈許生傳〉은 自己 자신의 창작이 아니고 尹映이라는 사람에게 들은 말이라 하고 作中人物 〈卞〉富者는 그 당시 長安에서 高利貸金業者로 有名하던 卞承業의 祖上일 것¹⁰⁾이라고 하나 그것을 들은 것이 燕岩이 일찌기 20歲(1756)의 약관으로 奉先寺에서 듣고 〈許生傳〉을 創作한 것이 그의 나이 44歲(1780)이고 보면 24年만에 쓰여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¹¹⁾ 그러고 보면 尹映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모티프로 하여 燕岩이 理想의 人間像 〈許生〉을 創造했다고 할 수 있으며 〈許生〉은 燕岩의 投影임은 물론 그의 生活環境과도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臣家世清貧 素無田園 生長葦叢之下 目不辨菽麥 臣祖 食垂柳蠶 而臣幼時 掬其紅腐種於庭中 以待其方包也 稍長 微逕儒士 未當與人僑客相接 及中歲落拓始有志歸農 求所謂農家者流而抄錄之 然實無田可歸 特硯田而算耕而已¹²⁾

여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는 가난한 선비로 硯田筆耕한 點으로 〈許生〉

9) 李善榮: 日帝植民地時代의 小說과 社會, 韓國史學 第3輯, 정신문화연구원 1981. p. p. 197~223 參照.

10) 朴趾源: 燕岩集, 李在秀: 韓國小說研究, 宣明文化社, p. 332.

11) 李家源: 燕岩小說研究, 乙酉文化社, p. p. 593~5.

12) 朴趾源: 燕岩集 卷16.

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自己 生活에 實學思想 특히 利用厚生의 理想을 <허생>에 假托하여 作品化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玄鎮健의 貧妻(1922)도 自叙傳的 小說¹³⁾로서 그가 16歲(1915年) 때 고향의 부호 李吉雨의 열여덟살 된 딸 李順得과 結婚했다는 點에서 <貧妻>의 夫婦과 一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許生傳>과 <貧妻>는 다함께 自傳的 小說로서 공통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제 <許生傳>과 <貧妻>를 中心으로 몇가지 側面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燕岩의 <許生傳>에 對해서는 이미 많은 論考¹⁴⁾가 있었으니 李在秀教授는 <許生傳>을 評하여

「許生傳」은 燕岩의 短篇 中 가장 大作이다. …그것은 어느 短篇 보다도 「許生傳」에 중대한 問題가 취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말이다. 당시 尖銳한 知性으로서의 作家가 自身이 國家와 社會에 대해서 품고 있던 政治的, 經濟的 兩大 問題를 이 作品에서 동시에 취급하고 있다.¹⁵⁾

고 지적하고 ①重商主義 ②車舟論 ③理想國家의 건설 ④爲政者에 對한 批評 ⑤北學論 ⑥尊明思想¹⁶⁾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으며, 李家源教授는 商業經濟思想 내지 重商의 思想의 高취¹⁷⁾로 파악하고 있으며 黃浪江교수는 許生의 人物型을 中心으로 1)重商主義와 俗物根性, 2)理想主義者와 現實 3)構造的 病理의 克服 4)理性者의 분노¹⁸⁾로 나누어 자세하게 고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論考에서 모두가 한결같이 強調하고 있는 것이 重商主義云云하여 「許生傳」의 表面에 나타나는 意味, 다시 말하면 表面的 主題에만 關心을 집중할 뿐 作品의 뒷면에 있는 世界, 즉 裏面的 主題에 대해서는 별로 論議되지 않고 있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許生>은 끝내 重商主義者의 思考의 所有者일 뿐 끝까지 「士」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點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그것은 그의 「虎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양탄의 부패를 주장한다고 해서 결코 平民意識의 所有者이거나 階級打破를 주장한 것

13) 李商燮: 身邊體驗小說의 特質, 文學思想 通卷 7號, p. 326.

14) <許生傳>에 對한 代表的 論考로는 李家源: 燕岩小說研究, 李在秀: 한국소설연구, 黃浪江: 許生傳小考等을 들 수 있다.

15) 李在秀: 前掲書 p. 361~2.

16) 李在秀: ibid. p. p. 333~353 參照.

17) 李家源: op cit p. 639 參照.

18) 黃浪江: op. cit. p. 144.

과 同一視하여 作品을 解釋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現象이다.

이제 「許生傳」과 「貧妻」를 分析하면서 이들 두 作品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現實認識 態度와 그 反應의 양상을 살펴 보기로 한다.

〈許生〉은 讀書만 좋아할 뿐 生計에 對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生計를 꾸려가는 人物은 그 아내일 수밖에 없다.

草屋數間 不蔽風雨 然許生讀書 妻爲人縫刺以糊口〈許生傳〉

한편 「貧妻」의 경우 作品의 題目이 暗示하는 바와 같이 文筆家가 되려고 讀書과 創作에만 열중하는 男便과, 그와는 달리 아내는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시집 올 때 가져온 세간과 옷가지를 전당포에 잡혀가며 生計를 꾸려가고 있다.

내가 아다시피 내가 별로 천품은 없으나 어쨌든 무슨 저작가로 몸을 세워 보았으면 하여 나날이 창작과 독서에 전 심력을 바쳤다. 물론 아직 남에게 인정될 가치는 없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 자연 일상생활이 말쑥(末由)하게 되었다.

이런 곤란에 그는 근 이 년 전더러 왔건만 나의 하는 일은 오히려 아무 보람이 없고 방안에 놓였던 세간이 줄어들고 장롱에 찼던 옷이 거의 다 없어졌을 뿐이다.

「貧妻」

이와같이 〈許生傳〉에 있어서 〈許生〉과 〈貧妻〉에 있어서 〈나〉는 生活無能力者로 등장하는데 反하여 生計는 전적으로 〈아내〉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비뚤어진 家族關係에서 끝내 善良한 아내들은 男便의 無能에 對하여 비판적 姿勢를 취하게 된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現象이다 하겠다.

一日妻甚飢泣曰 子平生不赴學 讀書何爲 許生笑曰 吾讀書未熟 妻曰 不有工乎 生曰 工未素學 奈何 妻曰 不有商乎 生曰 商無本錢 奈何 其妻 悲且罵曰 晝夜讀書 只學奈何 不工不商 何不盜賊 許生掩卷起曰 惜乎 吾讀書 本期十年 今七年矣 出門而去

「許生傳」

『당신도 살 도리를 좀 하세요.』

『……』

나는 또 「시작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머리에 번적이며 불쾌한 생각이 번쩍 일어난다. (…1行略…)

『우리도 남과 같이 살아 보아야지요.』

아내가 T의 양산에 단단히 자극을 받은 것이다.

…中略…

『급작스럽게 살 도리를 하라던 어찌 할 수가 있소. 차차 될 때가 있겠지.』

『아이구, 차차란 말씀 그만 두구려, 어느 천년에.』…中略…

『막별이군한테 시집을 갈 것이지, 누가 내지 시집을 오랬소! 저 따위가 예술가의 처가 다 뭐야!』

「貧妻」

以上の 引用에서 <許生傳>의 아내와 <貧妻>의 아내는 生活을 돌보지 않는 男便에 대하여 正當한 要求를 한다. 그런 點에서 아내들은 賢妻인 동시에 現實의 人間인데 反하여 男便은 理想主義者의 人間像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아내의 現實的 비판에 對하여 <許生>과 <나>의 反應은 아주 異質의이다. 앞의 引用文에서도 조금 나타나지만 <許生>은 <掩卷起 出門而去>하는데 比하여 「貧妻」의 <나>는 아내의 正當한 要求를 묵살하고 오히려 아내를 辱罵질려 아내의 正當한 要求를 묵살할 뿐만 아니라 <저따위가 예술가의 처가 다 뭐냐>고 逆습하는 暴君으로 바뀌어 진다는 사실을 看過할 수 없다.

물론 <許生傳>과 <貧妻>의 時代狀況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實學에 바탕을 둔 <許生傳>과 植民地社會의 桎梏 속에서 쓰여진 作品 사이에서 오는 主人公의 反應의 差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問題는 作家의 現實認識의 態度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結果 <許生>은 <欲有所小試>로 <萬金>을 빌려 安城에서 全國의 과일을 매점하여 배(倍)의 利潤을 남기고 濟州에 가서 말총을 사서 12배의 이윤을 보고 群盜를 모아 無人空島에 가서 농사를 지어 日本에 팔아 은 백만냥을 받아 50만냥은 바다에 버리고 50만냥으로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고 10만냥은 卞氏에게 갖게 된다.

이처럼 <許生>이 취한 行動은 물론 그의 말대로 <欲有所小試>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가 아내의 성화로 <掩卷起>했지만 그가 취한 行動은 個人的이거나 家庭事가 아닌 對社會의 行爲인 것이다.

이러한 點을 黃湜江교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그 時代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질러 깊숙히 社會의 本質을 看破했던 人物이었고, 「가난」속에서도 「가난」의 本質을 透視할 수 있었던 自覺한 人物이었다. 따라서 그는 그 病理에 立脚하여 「가난」과 問題를 克服할 수 있는 具體的인

고도 實踐 가능한 現實의 方案을 提示했고 또 實踐하였다.¹⁹⁾

이러한 陣述은 상당히 妥當하다. 그러나 「許生傳」에 있어서 문제의 本質은 竊珠리는 아내를 가난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急先務임에도 불구하고 <許生>이 취한 行動은 문제의 출발과는 달리 아내의 가난은 그대로 밀쳐 둔 채 對社會的 문제로 그의 시선을 돌리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그가 十萬兩을 가지고 賣占한 行爲는 결코 對社會的 利益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利己的 行爲로서 다만 <許生>이 自己의 장사 수완을 보여준 것에 不過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點은 <許生>도 시인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이 賣占 行爲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許生曰 此易知耳 朝鮮舟不通外國 車不行域中 故百物生于其中 消于其中 夫千金小財也 未足以盡物 然析而十之 百金十 亦足以致十物 物輕則易轉 故一貨雖細 九貨伸之 此常利之道 小人之賈也 夫萬金足以盡物 故在車專車 在船專船 在邑專邑 如綱之有罟 括物而數之 陸之產萬潛停其一 醫之材萬潛停其一 一貨潛藏 百賈皆涸 此賊民之道也 後世有司者 如有用我道 必病其國 (傍點筆者)

이러한 <許生>의 이야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問題의 本質을 정당하게 파악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經濟流通의 限界點을 지적한 것으로 그 行爲를 理解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가 日本과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돈 가운데 50萬兩을 물에 던져버림도 그 이유를 <百萬無所容於國中 況小島乎>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무역을 하는 형편이라면 國內에 不足한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도 생각 해 볼직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므로 <許生>의 重商主義도 그 바탕이 철저한 것이라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었다. 그것은 燕岩이 결코 超階級의 人物일 수 없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테면 <許生>이 卞氏에게 十萬兩을 가져 갔을 때 <卞氏>와 <許生>과의 對話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卞氏驚曰 子之客色 不少瘳 得無敗萬金乎 許生笑曰 以財辭面 君輩事耳 萬金何裨於道哉 (傍點筆者)

또한 許生이 卞氏에게 자기가 빌려간 萬兩에 대한 元利金으로 10萬兩을 주자 卞氏가 만냥에 利子만을 받으려 하자 許生은 大怒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 黃浪江 : op. cit p. 131

往見卞氏曰 君記我乎 卞氏驚曰 子之客色 不少瘳 得無敗萬金乎 許生笑曰 以財賄
 面 君輩事耳 萬金何肥於道哉 於是以銀十萬 付卞氏曰 吾不耐一朝之飢 未竟讀書 慙
 君萬金 卞氏大驚 起拜辭謝 願受什一之利 許生大怒曰 君何以冀還視我也 拂衣而去

여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許生〉은 돈보다 〈未竟讀書〉에 마음 아파하는
 동시에 自己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는 것〉에 對하여 大怒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卞氏가 10만냥을 가지고 許生을 찾았을 때 許生은

我欲富也 棄百萬而取十萬乎 吾從今得君而活矣 君數視我 計口送糧 度身授布 一
 生如此足矣 熟肯以財勞神

하며 거절한다. 여기서도 〈무슨 까닭으로 재물로서 나를 귀찮게 만드느냐〉고
 反問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交脈에서 우리는 〈許生〉이 어느 정도 重商主義思想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意識의 밑바닥에는 뿌리깊은 선비意識이 內在하고 있으며 〈農
 商工〉보다 한결 높은 위치에 군림하고자 하는 선비의 精神至上主義와 만나
 지 된다. 이러한 생각은 연암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夫士 下列農工 上列王公 以位則無等也 以德則雅事也 一士讀書 澤及四海 功垂萬
 世 易曰 見龍在田 天下文明 其謂讀書之士乎²⁰⁾

여기에서 우리는 철저한 계급의식과 선비의 우월성을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許生傳〉에 있어서 重商主義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
 리 선비의 觀念的 世界이며 계급을 떠나서 成立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
 런 點에서 연암의 思想은 기존질서(계급의식과 모랄)을 유지한 상태에서 許
 生の 말처럼 〈欲有所小試〉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또 〈許生傳〉은 家庭事
 에서 許生의 對社會活動이 出發하였음에도 不拘하고 作品의 結末에 이르러
 서도 가정의 빈곤은 전연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또다른 면에서 觀念的
 世界에 머물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때 「許生傳」에 있
 어서 問題의 提起와 그 問題에 대한 許生의 反應은 形式的으로 一致되는 것
 같으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問題의 해결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世界에 대한
 關心의 表明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點에서 「許生傳」은 구성
 의 統一性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20) 李佑成 : op. cit, p. 131 再引用

한편 <貧妻>의 경우 앞에서 인용한 바와같이 아내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저 따위가 예술가의 처가 다 뭐야>고 역습함으로써 자기의 무능을 아내의 무식함으로 대체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남편의 意識에는 文士로서의 강한 자부심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식한 아내를 <藝術家의 妻>로 格上시킴으로써 自己 스스로 위대한 藝術家의 立場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主人公의 所望의 思考(wishfull thinking)의 表現法으로 따지고 보면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남편의 내심에는 自己도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좋은 옷도 사주고 호강도 시켜주고 싶은 것이다.

『넌들 따누라를 고생시키고 싶어서 시키겠소! 비단옷도 해주고 싶고 좋은 양산도 사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원종일 쉬지 않고 공부를 아니하우. 남 보기에는 편편히 노는 것 같애도 실상은 그렇지 안해! 본들 모른다 말어요.』

나는 점점 강한 가면을 벗고 약한 진상(眞相)을 드러내며 이와같은 가소로운 변명까지 하였다.

『원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비소(誹笑)하고 모욕하여도 상관이 없지만 따누라까지 나를 다니 믿어 주면 어찌 한단 말어요.』

이러한 남편의 告白은 자기의 무능에 대한 자각이며 결국 藝術家云云한 것도 자기 무능에 대한 僞裝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許生傳>에 있어서 許生은 自己의 無能을 有能으로 바꿀만큼 現實에 對한 認識이 강렬했으며 또 그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실제로 實踐에 옮길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는 적극적 인물인데 反하여 <貧妻>의 男便<나>는 現實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비견도 없이 다만 아내의 理解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爲人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貧妻>에 있어서 나(男便)는 가장 절실한 가난의 問題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장인의 生日에 돈 많은 妻兄의 눈 위에 멎든 것을 보고 自己의 가난을 幸福의 源泉²⁰⁾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번에는 별로 대단치 않은 일에 처형에게 밤상으로 냐다갈져 그렇게 덩이 들었다 한다.

『그것 보아, 돈 쏘이나 있으면 다 그럴 것이야.』

『정말 그래요, 없으면 없는데로 살아도 의중계 지내는 것이 행복이요.』

아내는 충심으로 공명해 주었다.

20) 拙稿: 20年代 小說과 知識人像, 嶺南語文學 第3輯, p. 120.

여기에서 <돈 많은 者=난봉군> <돈 없는 者=긴장한 남편>이 가는 圖式的 思考로 그들의 가난을 外面한다는 것은 L센티멘탈리스트의 問題解決²¹⁾일 뿐 眞정한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결국 問題에의 회피인 것이다.

그러므로 <貧妻>는 20年代 知識人들의 정신지상주의적 思考에 바탕을 둔 現實 도피적 世界의 表現일 뿐 現實과의 對決意識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面에서 玄鎭健의 現實認識의 態度는 상당히 많은 問題點을 지닌다²²⁾는 것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IV. 結 言

以上으로 燕岩의 <許生傳>과 憑虛의 <貧妻>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이를 表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許生傳	貧妻
人物	許生(아내)	나(아내)
思想의바탕	實學思想	眞實主義
問題意識	가난(生活苦)	가난(生活苦)
解決策	重商主義(對社會의식)	現實外面(個人的 삶)
主題意識	선비의식의 강조	지식인의 정신주의

위의 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두 作品은 거의 同質의 바탕을 가지고 있으며 <許生傳>은 個人事에서 출발하여 對社會의世界로 작가의 시선이 상당히 폭이 넓는데 反하여 <貧妻>는 처음부터 끝까지 個人的 次元에서 問題를 보고 있다는 點이다. 그러므로 燕岩의 作家意識이 보다 社會的인 文脈과 깊은 關係를 갖고 있다면 憑虛의 경우에는 社會적인 文脈과는 유리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許生傳>에 나타난 <許生>의 行爲는 따지고 보면 <未竟讀書>에서 그의 장사수완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時局에 對한 강한 비판정신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은 <선비>로서의 知的 포즈일 뿐 지금까지 많은 論考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상주의에 투철한 作品이라거나 제급타파와는 상당한 거리에

21) 李商燮: 身邊體驗小說의 特質 p. 328.

22) 金重河: 憑虛의 社會認識에 對한 反省 語文學 33號, 參照.
拙稿: 前揭論文 參照.

있음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許生傳>은 李朝後期 實學思想과 함께 現實에 대한 투철한 인식 위에서 成立되어졌다는 點에서 當代文學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問題作임은 틀림없다. 여기에서 問題作이란 作品의 成功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當代社會의 問題意識을 충분히 提起했다는 점에서 問題作일 뿐이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作品<許生傳>은 事件의 眞實성이 결여되고 統一을 상실하고 있음도 지적될 수 있다.

그런데 比하여 <貧妻>는 日帝植民地 아래에서 文士의 가난을 個人的 文脈으로 한정하여 보여주었다는 點은 手法으로서 리얼리즘文學일 뿐 作品의 主題意識이나 작가정신을 사회적 문맥과 유리시킴으로써 當代 現實과 밀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